2023학년도 이감 국어 L

제1차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이감 국어 L 제1차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3	③	2	25	③	2	37	②	2
2	③	3	14	⑤	2	26	①	3	38	⑤	2
3	④	2	15	④	2	27	④	2	39	④	3
4	①	2	16	③	2	28	⑤	2	40	①	2
5	④	2	17	②	2	29	①	2	41	⑤	3
6	②	2	18	④	2	30	③	3	42	④	2
7	②	2	19	④	2	31	③	2	43	②	2
8	③	2	20	③	3	32	①	2	44	⑤	2
9	⑤	3	21	④	2	33	②	2	45	③	3
10	②	2	22	③	2	34	④	3			
11	①	2	23	③	2	35	①	2			
12	⑤	3	24	⑤	2	36	②	2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이감 국어 L 제1차 해설

[1 ~ 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에 반영된 발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잎의 방수 기능이 기술에 처음 적용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생체 모방 기술의 소재 중 하나로 연잎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여 연잎이 생체 모방 기술의 소재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②'연잎에 물이 떨어졌을 때 ~ 씻어 내기 때문이죠.'라고 하여 연잎이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연잎의 미세 돌기가 '3~10 ㎛ 크기'라고 제시하고 있다. ⑤'연잎과 같이, 삶의 ~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하여 생체 모방 기술의 소재를 찾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서 활용된 발표 전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 도표를 활용하여 연잎 표면 구조를 응용한 방수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체 모방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생물들을 알려 주기 위해 도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물총새의 부리 모양을 본뜬 초고속 열차와 엉겅퀴의 특성을 본뜬 벨크로 테이프의 모습이 담긴 '사진 1'을 제시해 생체 모방 기술의 사례를 알려 주고 있다. ② 연잎 표면을 확대한 '사진 2'를 제시해 연잎의 특수한 표면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접촉각을 나타낸 그림을 제시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⑤ 연잎의 표면 구조를 활용한 방수 페인트를 바른 건물의 표면과, 이 건물에 비가 내렸을 때 건물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시하여 연잎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3.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생체 모방 기술'의 뜻을 정리하고 있으며, '학생 2'는 '접촉각'의 뜻을 정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학생 1'과 '학생 2'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해 의문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③'연꽃 구경'이라는 일상의 경험을 발표 내용과 연결 지은 것은 '학생 1'이다.

[4 ~ 7] 화법 – 작문 통합

4. [출제의도] 회의에 나타난 진행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희'는 (가)의 첫 번째 발화에서 '우리가 준비한 강화도 ~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야.'라며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오늘은 이 문제의 ~ 신청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라며 논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발화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역사 탐방이 ~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네.'라고 하며 회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또 네 번째 발화에서 '민아야, 그 얘기는 오늘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라고 하여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이 논의의 흐름에서 벗어날 때 이를 지적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회의의 특정 발화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바로 앞 발화에서 '현수'는 '역사 탐방을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교내 알림판에 게시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서 '민아'는 '그러면 역사 탐방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릴 수 있'을 거라며 '현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수 없어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현수'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는 것(④)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현수'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 바로 앞 발화에서 '정우'는 '역사 탐방 장소(강화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에서 '민아'는 '강화도는 지난해 말 ~ 호응이 높았던 장소'라고 하여 '정우'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② ㉡의 바로 앞 발화에서 '민아'는 역사 탐방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에서 '현수'는 '나도 장소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민아'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학생들이 우리가 역사 탐방을 ~ 원인인 것 같'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③ ㉢의 바로 앞 발화에서 '현수'는 역사 탐방 신청자가 적은 이유로 학생들이 역사 탐방이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에서 '정우'는 '그러고 보니 ~ 네 말대로 그게 원인인 것 같아.'라고 하여 대화 초반에 가졌던 기존의 견해(역사 탐방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청자가 적다는)를 수정하고 있다. ⑤ ㉤의 바로 앞 발화에서 '민아'는 역사 탐방 신청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된 포스터 제작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서 '정우'는 '그럼 포스터 대신 ~ 홍보 글을 실으면 어떨까?'라고 하여 '민아'의 발언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회의의 작문 계획이 초고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현수'가 제시한 '그리고 역사 탐방에서 둘러보게 될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안내해야겠지?'라는 의견은 (나)에서 '역사 탐방에서 둘러보게 될 문화유산도 각 시대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라고 하여 선사 시대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안내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 경로에 따라 문화유산을 나열(②)'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초고를 고쳐 쓰는 데 반영된 학생들의 조언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인 ⓐ와 고쳐 쓴 글인 <보기>를 비교해 보면 '3월 20일까지 '역사랑'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내용과 '화창한 봄날, 우리 함께 강화도로 역사 탐방을 떠나 보면 어떨까요?'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 탐방을 신청하는 방법과 역사 탐방에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 10] 작문

8.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셋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접이식 대기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되고, ○○시의 보행자 사고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가 얻게 될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건의 내용이 한 개인이 아닌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즉 건의 내용의 공익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9.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의문을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와 ㉱를 활용하여 접이식 대기 의자를 설치하면 고령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아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 보행 사상자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전체 보행 사상자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의 보고서 자료를 보면 고령 보행 사상자의 수는 부상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 또는 감소하였지, 꾸준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꾸준히 증가한 것은 전체 보행 사상자 중 고령 보행 사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② ㉯의 통계 자료를 보면 고령 보행 사상자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 보행 사상자의 98%가 시장과 병원, 역, 터미널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③ ㉮의 첫 문장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보행 사상자의 약 70%가 도로 횡단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 ㉢에 이 수치를 활용하여 수정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④ ㉮의 마지막 문장에는 접이식 대기 의자를 설치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어르신들의 왕래가 잦고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가 언급되어 있는데 ㉯에 의하면 ○○시에서 이러한 장소는 시장과 병원 주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활용한다면 ㉣에 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에는 접이식 대기 의자의 도입을 건의하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 이유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로 어르신들이 선 채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11～15] 언어

11. [출제의도] 단어를 지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르내리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이는 뒤에 오는 어근 '내리다'와 그 품사가 동일하다. 또한 '오르내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이는 대등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③ '요사이'는 명사이고, '사이' 또한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밤낮'은 ⓓ에서 부사로 쓰였다. 이는 '낮'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에 해당한다. 부사 '밤낮'은 '늘', '항상'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⑤ '쑥밭'은 명사이고, '밭' 또한 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에서 '쑥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의 '앒셔다(앞서다)'는 부사어+서술어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현대 국어의 '굳세다'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의 '거즛말(거짓말)'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현대 국어의 '남다르다'는 부사어+서술어 구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중세 국어의 '뛰놀다(뛰놀다)'는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어미 없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현대 국어의 '덮밥'은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직접 결합한 구성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부정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부정의 보조 용언 '못하다'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여 앞말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못하다'에 의한 부정은 능력 부정이 아닌,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와 ⓔ를 통해, '못하다'는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여 앞말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함을 알 수 있다는 ③은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풀이] ② ⓑ와 ⓒ는 부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는 '그가 그녀와 밥을 먹은 것이 어제인지 어제가 아닌지', '그가 어제 밥을 먹은 사람이 그녀인지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등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④ '아니하다'와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쓰인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부정은 '말다'를 써서 나타낸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겹받침 발음에 적용된 규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흙긁개[흑끌깨]'에서의 '흙'은 [흑]으로 발음되었다. 이는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긁'은 [끌]로 발음되었다. 이는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답풀이] ③ '얽거나[얼꺼나]'에서의 겹받침 발음은 ㉣에 따른 것이다. ④ '옮아앉다[올마안따]'에서 '앉다'의 겹받침 발음은 ㉠에 따른 것이다. [올]은 겹받침의 'ㅁ'이 다음 음절로 연음된 발음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것 중에는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15. [출제의도] 국어사전의 내용을 올바르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를 고려하면, ⓐ에는 ㉠과 ㉢이 들어갈 수 있다. ⓑ에는 ㉣이 들어갈 수 있다. ④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므로, ⓒ에는 '접속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21] 과학－예술 통합

16.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TV라는 매체로 구현된 예술인 미디어 아트를 제시하고 미디어 아트에서 감상자가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소통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 전자의 질량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제시된 바는 없다. ② (가)에서 음극선을 최초로 발견하는 과정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톰슨은 이미 발견된 음극선을 이용해 실험을 했으며, 그 실험을 통해 그 음극선에 있는 입자가 전자임을 밝혀냈을 뿐이다. ④ (나)는 TV가 예술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으나 TV가 예술과 과학에 미친 상반된 영향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달리 (나)에서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미학적 개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1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실험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음극선이 휘어지는 정도가 전기력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점으로부터 톰슨이 확인한 것은 전자의 전하량이 매우 작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음극선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다.

[오답풀이] ① 음극선이 항상 전기장의 양극 방향으로 휜다는 점에서 음극선의 입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음극선의 휘어짐이 음극선관에 일부 남아 있던 기체와 무관하다는 것으로부터 전극의 주변에 있는 기체는 음극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음극선이 항상 자기력선에 수직으로 힘을 받는다는 점을 통해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음극을 구성하는 원자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비전하가 측정된다는 사실로부터 음극선 입자는 어떤 원자에든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입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빈칸의 내용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톰슨의 실험 이후에 진행된 또 다른 실험 결과에 대해 가정하고 있다. 수소 이온의 전하량과 수소 원자에서 빠져나온 전자의 전하량이 같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가)에 따르면 수소 이온은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 전하를 띤 상태를 뜻한다. (가)에 설명되어 있는 비전하의 개념을 이용하면 빈칸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풀이] 전자의 비전하가 수소 이온의 비전하에 비해 1,000배 정도 크고, 전자의 전하량이 수소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는 사실로부터 수소 이온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1,000배 정도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소 이온의 질량과 수소 원자의 질량이 거의 같다면, 수소 원자의 질량 역시 전자의 질량보다 1,000배 정도 크다. 즉 수소 원자의 질량에 비해 전자의 질량은 1/1,000 정도로 작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주어진 정보로부터 전자의 질량은 수소 원자 질량의 1/1,000 정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② (가)에 따르면 음극선 입자의 비전하, 즉 전자의 비전하는 수소 이온의 비전하보다 1,000배 정도 크다. ③ 전자는 어떤 원자에서 빠져나온 것이든 모두 동일하다. 특정 전자가 더 큰 로런츠 힘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⑤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나 금속 전극에 있던 전자 등 모든 전자는 전하량이 같다.

19.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브라운관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 주변의 자기장이 변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음극선의 휘는 방향이 바뀔 것이다. 편향 코일은 인위적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한 고정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화면에 도포되어 있는 형광 물질에 전자가 충돌하면 빛이 발생한다. 음극선은 전자들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음극선이 형광 물질에 충돌하면 빛이 발생할 것이다. ② 모래 그림에서 모래는 예술가의 표현 수단 혹은 재료인 매체에 해당한다. ③ (나)의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백남준은 음극선관의 일종인 TV 브라운관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작품 구현에 활용했다. ⑤ 편향 코일은 상하 방향을 조절하는 것, 좌우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있다. 전기력의 세기에 따라 음극선이 많이 휘므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야 전기장 조절을 통해 음극선이 화면의 어느 곳에서든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소개된 개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보기설명] 영상 합성기의 개발로 가능하게 된 감상자의 해석적 참여가 소개되어 있다. 해석적 참여는 직접적 참여와 달리 감상자가 화면 속 영상 이미지들의 변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합성기를 통해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들의 흐름을 종합하여 나름의 의미를 해석하는 참여를 말한다. 그러나 매 순간 다른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은 직접적 참여와 동일하다.

[정답풀이] (나)에 따르면 백남준의 작품은 감상자의 참여에 의해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완성된다. 이를 영상 합성기를 활용한 작품에 적용해 보면 감상자가 불확정적인 이미지들의 연속에서 의미를 읽어 냄에 따라 매 순간 다른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TV는 여전히 전자가 운동하며 휘는 공간이다. 영상 합성기가 등장했다고 하여 TV가 중심 매체에서 단순한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니다. ②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므로 영상 이미지는 우연한 추상일 수 있다. ④ 매체 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를 고정적으로 표현해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상자가 예술가의 의도를 읽어 내는 방식이라 보기 힘들다. ⑤ 영상 합성기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에서 영상 이미지들은 매 순간 전자의 운동이 변형됨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예술가가 사전에 머릿속에 떠올린 고정된 것이 아니다.

21.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활용되다'는 '충분히 잘 이용되다.'의 의미이므로, '정확히 맞다.'의 의미를 지닌 '들어맞다'와 바꿔 쓸 수 없다.

[22 ~ 27] 고전시가-수필 통합

➔ **맹사성, 「강호사시가」 | 정훈, 「용추유영가」 | 조희룡, 「이향견문록서」**

22.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추사>는 작은 배에 그물을 싣고 가서 흘리띄워 두고 소일하고 있다는 말로 화자의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어 자연을 한가하게 즐기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사>에는 화자의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④, ⑤ 이 작품의 모든 수에서 설의적 표현이나 말을 건네는 방식,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춘사>와 <하사> 모두에서 색채어는 찾아볼 수 없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가 겨울에도 '춥지 아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임금의 은혜를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맞지만, (나)의 화자가 '추위'에 떠는 궁핍한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백설에 덮인 자연의 풍광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끝없는 설경이 다 시재 되었으니')에 추위도 잊고('추위를 어찌 알꼬')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목에서의 '우활한 정신'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본래의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면서 시를 생각하느라 세상일을 다 잊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추위'에 떠는 궁핍한 삶을 자신이 '우활'한 탓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공명을 사념하며 빈천을 설워할까'는 공명을 생각하지 않으며 빈천을 서러워하지 않는다는 말로서, 이를 통해 벼슬에 오르지 못해 '공명'을 이루지 못했으며 향촌에서 가난을 겪고 있는 작가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⑤ '송관 가리어라 세상 알까 하노라'는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로서, 세상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향촌에 묻혀 지내는 자신의 삶을 순순히 받아들이려는 작가의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백 년 광음(사람의 한평생)'을 '이 산이 물'의 '경물을 실컷 거느리고' '노닐다가 마치리라'라는 말로써 현재의 만족스러운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미친 흥'은 봄철에 절로 일어나는 흥과 운치가 깊다는 뜻을 담은 시구일 뿐, 그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무관하다. ② 가을을 맞아 살진 '고기'는, 가을의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화자에게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지 화자가 선망하는 대상이 아니다. (가)는 강호 자연에서 누리는 삶의 완전한 충족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므로, 화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러워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④ '이 한 곳 풍광'의 '이 한 곳'은 다채롭지 못하고 한정된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세상의 부귀공명과는 무관하게 '산새 산꽃'을 벗으로 삼아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아쉬움이 아니라 만족감이 함축된 시어이다.

25.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햇빛을 맞으며 '국화' 꽃잎을 '잔에 띄워' 맛보면서, 그 둘이 '한결같이(하나와 같이)' '맑은 맛'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화의 풍미와 햇빛의 인상을 대조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맑은 '하늘'의 시각적 심상과 '기러기 떼' 울음소리의 청각적 심상을 통해 가을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높고 맑은 하늘은 가을철의 특징으로 흔히 꼽히는 소재이고, 기러기는 가을에 날아오는 철새로서 가을을 환기하는 소재로 흔히 쓰인다.) ② '강가의 단풍 숲'은 '붉은 비단 빛'이고 '한 줄기 강물'은 '푸른 유리'처럼 파랗다고 하여, 색채 대비를 통해 풍광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④ '겨울'이 조화를 부려 '백설'을 내린다고 하여, 눈 내린 겨울 산천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⑤ 눈에 덮여 희게 빛나는 '수많은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을 흰 빛깔의 옥구슬로 만들어진 '경요굴'에 빗대어 환상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증점이 말한 소망처럼 '청류에 목욕하고' '높은 봉에 올라' '맑은 바람을 실컷 쐰 후' '어른 아이 대여섯과 읊조리며 돌아오'면서, 자신의 기상이 '옛사람 기상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묻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옛사람과 견주어 차이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타락한 자신의 시대와 달리 자신은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자긍심을 내비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옛사람의 기상에 미칠 수 없으리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지향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③ 자신이 이상적인 옛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늦게 태어난 것에 대해 상심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말은, 자신은 옛 시대의 사람들처럼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④ (다)는 '인물이 번성하'여 '시문으로 후세에 전할 만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들의 행적에 대해 적은 글, 즉 『호산외기』나 『이향견문록』 같은 글이 없어서) '모두 인멸되어 아는 이가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빼어난 재주를 갖춘 여항의 인물들에 대해 그들의 행적을 기록할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19세기 이전에 이미 융성하기 시작한 여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글쓴이는 여항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후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여항 문화가 융성하는 시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이 책을 쓴 벗과 이 글을 쓴 자신이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글쓴이는, 금강산의 명승지는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미 이름을 얻었기에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 말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지만 이름을 붙여 전파하지 않았기에 사람의 발길이 없는 언덕과 골짜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관각'에서 문명을 떨치거나 '낭묘'에서 국정에 큰 역할을 한 사대부들은 그 행적이 (금강산의 명승지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전해지지만, 여항인 중에 언행이나 시문을 전할 만한 사람들은 그 행적이 (금강산의 이름 없는 언덕과 골짜기처럼) 잊히고 만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고 말했다. (이는 곧 여항인들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이향견문록』 같은 책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금강산의 이름 없는 골짜기들이 경관이 뛰어나지만 사람의 발걸음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③ 여항인의 경우에는 그의 언행이나 시문이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묻혀 사라진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들의 이름과 행적이 후세에 널리 전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28 ~ 31] 인문

28.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객관적 관찰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는 입장은 관찰에 관찰자의 지식,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동일한 대상을 눈으로 볼 때 망막에 맺힌 상이 동일해도 관찰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이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 경험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② 천동설이 지배하던 당시의 낙하 실험은 지동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실험 상황을 설정했다. ③ 관찰의 이론 의존성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객관적인 관측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④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감각 기관에 의존한 관찰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감각 기관에 의해 들어온 정보를 인지할 때 착각이 있을 수 있다.

2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학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패러다임은 설명하기 힘든 변칙 사례 하나의 등장만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변칙 사례들이 늘어나고, 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체계가 등장하면 그때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된다.

[오답풀이] ② 쿤에 따르면 관찰 방법이나 실험 설정 방법은 패러다임에 의해 달라진다. ③ 쿤에 따르면 특정 시대의 과학자들은 특정 패러다임을 집단적으로 받아들인다. ④ 쿤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은 실증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지식의 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교체로 이루어진다. 패러다임 교체는 불연속적이다. ⑤ 쿤에 따르면 현재의 패러다임도 언젠가 교체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과학적 성취가 관찰의 순수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현재의 관찰이 온전히 객관적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30.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입장들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X선 사진이라는 관찰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증주의자와 반실증주의자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정답풀이] 실증주의자는 반실증주의자와 달리 관찰 사이에 끼어드는 지식, 기대감, 신념 등 제3의 요인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실증주의자는 객관적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찰의 환경을 매번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의사들이 매번 같은 해석을 내린다고 보지 않는다. ② 반실증주의자도 누구든 망막에는 동일한 상이 맺힌다고 본다. 다만 이를 인지하는 단계에서 각자가 지닌 지식의 차이로 인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뿐이다. ④ 판단에 착각이 개입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반실증주의자가 아닌 실증주의자이다. ⑤ 반실증주의자에 따르면 관측 장비는 온도계처럼 특정 이론의 산물이므로 X선 사진에도 지식이 개입되어 있다.

3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룸.'의 의미이다.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성질'의 의미이다.

[32 ~ 34] 고전소설

➔ 권필, 「주생전」

32. [출제의도]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배도가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의 글'을 써 줄 것을 요구하자 주생은 '푸른 산'과 '푸른 물'이 변하지 않음에 빗대 배도에 대한 자신의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 방식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 '백옥 방석' 등의 표현이 보여 주듯,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이 되는 방 안 풍경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주생의 눈에 이 공간이 '황홀'하게 비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공간의 세속적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탈속성을 드러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소녀의 자태를 보고 황홀해진 주생의 내면을 '넋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했다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배도를 '갈까마귀나 올빼미', '모래나 자갈'에, 소녀를 '봉황'과 '옥구슬'에 각각 견주어 배도에 비해 소녀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와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빛이 어리어 있'다나,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다와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했다'는, 유사한 성격의 구문을 반복 서술하여 소녀의 외모를 부각하고 있다. ⑤ 주생이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고 서술한 다음, 그의 시선에 따라 방 안의 풍경, 부인의 모습, 소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차례대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마치 실제로 방 안 풍경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배도가 주생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눈을 흘겨보는 소녀의 반응을 질투심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만남을 그르칠 뻔했도다'라고 말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소녀의 반응은 부인과 자신이 배도의 사정을 모른 채 오래 붙잡아 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도의 이야기에 대해 소녀가 보인 반응을 두고 남녀 주인공의 애정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판단은 성립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이익이 기생 곽소옥과 해로할 것을 맹세하고도 그 맹세를 저버렸다는 사연(당나라 소설 「곽소옥전」의 내용)을 환기하면서 배도가 주생에게 '맹세의 글'을 요구한 데에는, 자신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주생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 배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주생이 처음 본 소녀에게 반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갈 뻔했다는 것은 배도에게 약속한 사랑이 충동에 의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주생은 노 승상 댁의 화려한 방에서 엿본 소녀를 생각하며 '꿈에' '화려한 장막 속에서 선아를 만났'다는 시를 읊는다. 이를 불쾌히 여긴 배도가 '선아'가 누구인지 따져 묻자 주생은 속마음과 달리 '그대가 곧 나의 선아'라고 거짓말을 한다. 주생이 이처럼 거짓말을 한 까닭은 이미 배도와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5 ~ 39] 사회

35. [출제의도] 독서 대상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현대인의 소비 현상에 대해 연구한 학자인 보드리야르와 부르디외의 견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대인의 삶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분석하는 글을 읽으려는 사람에게 추천할 만하다.

[오답풀이] ② 이 글은 특정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흐름을 개괄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 전달 방식을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인간이 사회 구조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온 사례를 담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소비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의 구체적인 효용인 사용 가치를 소모하는 행위로만 여겨져 왔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오답풀이] ① 현대 사회의 소비는 단순히 부수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를 좌우하고 있다. ③ 부르디외는 주체 없는 소비 사회를 가정할 경우 사회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정을 부정하였다. ④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의 소비 행태가 사회를 균등화하지 않고 '구별 짓기'를 강화한다고 보았다. ⑤ 소비의 목적이 변하면서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소비의 목적과 그 의미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37.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비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소비의 과정에서 상품의 효용을 고려한다. 다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분위기나 이미지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뿐이다.

[오답풀이] ①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생산 활동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사회 구조의 형성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분위기와 이미지를 통해 차별화의 욕구를 충족한다. ④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소비 사회에서는 대중 매체와 광고에 의해 형성된 기호 체계가 만들어 낸 조작된 욕구만 남을 뿐이다. ⑤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는 일상생활이나 교육을 통해 체화된 인지적 틀이며, 그것이 소비의 안목을 결정한다.

3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개념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이 지닌 기호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또한 부르디외에 따르면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행위를 이끄는 취향의 체계인 아비투스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오답풀이] ① 기호 가치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중요성을 잃은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② 기호 가치는 소비 사회에서 상품 간에 발생하는 위계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③ 기호 가치의 개념을 주장한 보드리야르는 소비 사회에서 사회 변화를 야기하는 주체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④ 아비투스는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 등에도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기호 가치는 소비 행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39. [출제의도] 특정 관점에 따라 <보기>의 설명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상류 계층에 특화된 소비 개념인 과시적 소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 개념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두 개념을 서로 비교하며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류 계층은 자신의 아비투스에 따라 의식적인 구별 의도나 명백한 차이의 추구 없이 소비한다. 그러한 소비의 결과 자신의 위치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즉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상류 계층이 의식적인 구별 의도를 취향의 체계인 아비투스보다 우선시하며 명품을 소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부르디외는 계층마다 공유하는 아비투스가 다르다고 보았다. ② 부르디외에 따르면 자율적인 소비 행위들로 인해 상징 교환의 구조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③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비투스에 따른 소비는 사회를 균등화하지 않고 계층 간 구별 짓기 양상을 강화한다. ⑤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류 계층을 따라가는 소비를 통해 지위 향상을 이루기는 힘들고, 지위 향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대개 허위의식에 머물기 쉽다.

[40 ~ 42] 현대시

➔ 박용래, 「울타리 밖」 | 김용택, 「들국」

40.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에서부터 '들길',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과 '화초' '잔광', '별'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시구와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단풍', '하얀 억새꽃', '초생달', '허연 서리', '하얀 들국' 등의 시어와 시구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내 마음에'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나)는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드러내어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에 독자가 공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는 풍경만을 그리고 있을 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박용래의 시는 순수한 향토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었으며 (가)는 도시화 속에서 사라져 버린 고향의 원형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다양한 수식구를 변주하며 '마을이 있다'라고 반복한 것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버린 고향의 원형에 대한 작가의 향수와 지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고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은, 한여름 개울가에서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뛰노는 소년의 꾸밈없고 천진한 모습을 환기하고, 또 그가 '고향'의 '소년'이라는 점에서 순수하고 향토적인 세계에 대한 시인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의 자연물은 '~가(이) ~(하)듯'이라는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는 꾸밈이 없다는 뜻을 지닌 '천연히'라는 시어로 응집됨으로써 고향의 꾸밈없는 속성이 부각되고 있다. ③ 자신의 안마당뿐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까지 생각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④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라는 표현은 밤에 온갖 간판의 조명, 가로등 불빛 등이 현란하게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와는 달리, 인공의 빛이 없어 별빛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이를 통해 도시화로 사라진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시인의 향수를 엿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저 달', 즉 '그대 얼굴같이 걸'린 '초생달'마저 지고 나면 '세상 길'이 다 막히고 '막막한 어둠천지'가 될 것이라는 표현은, '당신'이 화자에게 올 수 없게 되어 버리는 상황과 그로 인한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을 단념하고 싶다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는 화자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하는 시의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산그늘'마저 '도망가' 버렸다는 시구는, 해가 기울 때 드리웠던 산의 그림자가 해가 지면서 사라져 버린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도망가 불고'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②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을 한다고 표현한 것은,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라는 시구와 결부하여 볼 때, 흔들리는 '꽃'의 모습에서 사람을 부르며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이를 '당신'을 기다리는 자신과 동일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단풍', '들국' 등의 시어를 볼 때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허연 서리만 끼어' 간다는 표현은, 간절하게 '당신'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을이 깊어져 서리가 내릴 만큼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과 결부하여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이 가을 다 가도록/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다는 것은 오지 않는 '당신'을 한결같이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며, '뭐헌다요'는 그러한 자신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자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3 ~ 45] 현대소설

➔ 양귀자, 「일용할 양식」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시내 엄마'는 '싱싱청과물'을 동정하고 있지만, [B]에서는 한 지역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동네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되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업종인 '전파상'을 할 듯하다는 말을 '고흥댁'에게서 듣고, 한 동네에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A]에서 '동맹자들'이 '목적을 달성한' 일이란, '김포슈퍼'와 '형제슈퍼'가 동맹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맺어 한동네에 들어온 '싱싱청과물'을 망하게 한 것을 가리킨다. '싱싱청과물'이 망하면서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오게 될 가게 때문에 '고흥댁'과 '시내 엄마' 사이에 긴장이 유발되고, [B]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그런 긴장감이 은근하게 드러난다. 즉 [B]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협력 상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A]의 상황이 [B]의 협력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물포 여자'는 "('형제슈퍼'의) 김 반장도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심상찮아."라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형제슈퍼'와 '김포슈퍼'가 한동네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남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형제'가 '김포'에 이기기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부동산을 하는 '고흥댁'은 '싱싱청과물' 자리에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내네가 쬐깐 괴롭겄'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이에 대해 '시내 엄마'는 '그럼 전파상이 온단 말예요?'라고 반응한다. 이 대화를 통해 '시내 엄마'네가 '전파상'을 하고 있으며, '싱싱청과물' 자리에 이사를 오게 될 사람들이 '전파상'을 열 계획이라는 사실을 '고흥댁'이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같이 먹고살아야지. 안 그래?'는 '우리정육점 여자'가 '시내 엄마'를 흉내 내며 놀리는 말이다. 남의 일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내 엄마'가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서 달라진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정육점 여자'가 '시내 엄마'에게 인간 소외의 현실 속에서 인정을 지켜 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④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말은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있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나 챙기겠다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소라 엄마'의 태도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각박한 세태를 엿볼 수 있다. (참고로 '김포슈퍼'와 '형제슈퍼'는 서로 담합하여 무리하게 상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새로 생긴 '싱싱청과물'을 망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이익을 누리며 결과적으로 '싱싱청과물'이 망하게 되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소라 엄마'의 말이나,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라는 '고흥댁'의 말은 동네 가게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혜택을 누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